

양궁도 기지가 편다...광주서 잇단 대회 개최



기보배

16~19일 국가대표 3차 선발전
20~25일엔 대통령기 양궁대회
기보배는 9월 올림픽 티켓 도전

광주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대한양궁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코로나19에 연기됐던 2020년도 리커브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16~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3차 선발전은 당초 3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

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연기됐다. 지난 1~2차 선발전에서 추려진 남녀 각 20명의 선수가 3차 선발전에서 경쟁해 살아남은 남녀 각 8명씩 2020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3차 선발전을 시작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국내 대회도 재개된다. 이달 20~25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대결을 펼친다. 광주시양궁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양궁장에 적합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신진서 거침없는 질주

바둑 GS칼텍스배 사상 첫 3연패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국내 최대 개인 기전인 GS칼텍스배 사상 최초로 3연패를 달성했다. 신진서는 12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경기 제3국에서 김지석 9단에게 16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지난 10일 1국에서 297수 만에 백 반집 승으로 기전을 제압한 신진서는 11일 17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둔 데 이어 3국까지 따내면서 종합전적 3-0으로 김지석에게 완승했다. GS칼텍스배에서는 결승 5경기 5판 중 3판을 먼저 이긴 기사가 우승을 차지한다. 신진서는 GS칼텍스배 최초로 3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이세돌을, 2019년에는 김지석을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또 신진서는 2018년 결승 5국부터 이날까지 GS칼텍스배 13연승을 달성했다. 신진서는 "매년 우승까지 오기 힘들었지만, GS칼텍스배에서 유독 컨디션이 많이 따라줘 3년 연속 우승할 수 있었다"며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노력으로 재밌는 바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서는 지난 2월 메이저 세계대회 LG배에서 우승에 이어 올해 국내외 타이틀 2개를 획득했다. 김지석은 2년 연속 준우승을 거두면서 이 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3회를 기록했다. GS칼텍스배의 우승 상금은 7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286명이 참가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9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여기에 전기 대회 시드를 받은 신진서, 김지석, 변상일 9단, 이호승 4단과 후원사 시드 윤준상 9단이 본선에 합류해 우승자를 가렸다. /연합뉴스

성적은 6위...연봉은 1위 맨유 '마음씨 좋은' 구단?

급여 5300억원으로 EPL 구단 최고

열성 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마음씨 좋은' 구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맨유가 2018~2019시즌 선수단 급여에 3억5200만파운드(약 5300억원)를 써 EPL 20개 팀 중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리그 평균 1억5800만 파운드(약 2400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맨유는 2018~2019시즌 조제 모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는 등 진통 끝에 최종 순위 6위에 자리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더 선이 공개한 선수단 급여 총액 순위표에서는 맨유가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맨유 선수 중 11명이 주급 10만파운드(약 1억 5000만원) 이상을 챙겼고, 이 중 4명은 주급이 20만파운드(약 3억원)를 넘었다. '떡튀' 논란 끝에 올 시즌을 앞두고 인터밀란(이탈리아)으로 이적한 알렉시스 산체스는 무려 50만5000파운드(약 7억 6000만원)를 매주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지역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시티는 선수단 급여로 맨유보다 3700만파운드 적은 3억1500만파운드(약 4700억원)를 써 2위에 올랐다. 첼시가 3억1400만파운드(약 4700억원)로 3위, 해당 시즌 준우승을 한 리버풀이 3억1000만파운드(약 4500억원)로 4위, 아스널이 2억 3500만파운드(약 3500억원)로 5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6위였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에 올랐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준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다리 잡고 온몸으로 저지 14일 오슬란드 에덴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오슬란드 블루스와 웰링턴 허리케인의 슈퍼 럭비 매치에서 양팀 선수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딸과 3주 떨어져야 하는데..."

윌리엄스 US오픈 출전 미지수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의 코치가 윌리엄스의 올해 US오픈 테니스대회 출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윌리엄스의 코치 패트릭 모라토글루(프랑스)는 지난 13일 미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윌리엄스가 US오픈에 출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100%"라면서도 "그러나 윌리엄스가 딸과 3주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US오픈은 8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전 선수는 대회 장소인 미국테니스협회(USTA)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동반자 1명하고만 함께 입장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의 딸 올림피아는 올해 9월에 만 3살이 된다. 경기력을 위해서는 딸보다는 코치 등과 함께 대회장에 입장하는 편이 낫다. 1981년생인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한 번 더 우승하면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24회)과 동물을 이룬다. 2017년 출산 이후 코트에 복귀,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네 차례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친 윌리엄스로서는 앞으로 은퇴 전까지 메이저 대회 출전 기회가 얼마나 더 있게 될지 미지수다. 이에 앞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등 남자 단식의 톱 랭커들도 현재 상황에서 US오픈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는 무릎 부상으로 2020시즌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K리그 최고의 유소년팀은?

'2020 K리그 주니어' 대회 개막
광주 금호고 첫날 진주고와 0-0
광양제철고 20일 현풍고와 대결

K리그 최고의 유소년팀을 가리는 '축구 미래'들의 무대가 시작됐다. K리그 산하 유소년팀들의 주무리인 '2020 K리그 주니어(이하 K리그 주니어)'가 코로나 19를

뚫고 13일 개막했다. U18 리그에 이어 U15 리그는 27일 시작돼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막이 늦어지면서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전·후기리그를 나누지 않고 대회가 진행되며 U18, U15 리그 모두 각 조의 해당 팀끼리 한 번씩만 경기를 치르는 등 11라운드로 경기수가 축소됐다. 조 편성은 원정 거리를 고려해 지역 기준으로 A조와 B조로 구분했다.

지난해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대회 정상을 밟았던 광주 금호고는 B조에서 경쟁을 펼친다. 금호고는 대회 첫날 진주모덕구장에서 경남FC U18팀인 진주고와 대회 첫 경기를 치렀고,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역시 B조에 속한 전남도래군즈 유소년팀인 광양제철고는 20일 오후 4시 대구 현풍고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27일에는 '아우'들이 옐로더비를 치른다.

광주 U15팀은 27일 광양송죽구장에서 광양제철중과의 경기로 대회를 시작한다. U15, U14 선수들이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대결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는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지난해부터 기존 U18 리그에서 U15 리그까지 대회를 확대하고, 저학년들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학년 리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연맹은 첨단장비를 착용해 경기 및 훈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EPTS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 영상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축구 미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필수 경기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는 경기장 출입이 통제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하늘을 향한 위대한 모험의 시작

에어로노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결백
3관	침입자
4관	결백
5관	침입자
9관	결백
7관 씨네커를	에어로노츠,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레옹 디 오리지널
8관 씨네커를	위대한 쇼맨, 언더워터, 도미노, 그림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방탈탈기방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탈탈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